

윤일유 업계 동향

S K 에너지(주)

故 최종현 회장 10주기 추모식 열려

- 26일 서울 워커히 호텔서 ... 각계 인사, SK 경영진 등 600여명 참석

故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10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전직 국무위원과 재계 원로를 비롯해, 학계·문화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와 SK 계열사 경영진, 유족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고인의 발자취를 기렸다.

추모식은 이흥구 전 국무총리, 조석래 전경련 회장, 염재호 고려대 교수 등 14명의 각계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추모위원회 주최로, 추모영상 상영 및 각계 인사 추모사 등 순으로 치러졌다.

정·관계에서는 이수성 전 총리, 이승윤 전 부총리, 나웅배 전 부총리 등이, 경제계에서는 김작중 전 전경련 회장, 김상하 전 상의 회장 등 고인이 전경련에서 활동할 당시 함께 경제계를 이끌었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출신인 이지순 서울대 교수, 임혁백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SK 측에선 김항덕, 황두열 전 SK에너지 부회장, 김승정 전 SK네트웍스 부회장, 조정남 전 SK텔레콤 부회장 등 전직 CEO 및 임원과,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정만원 SK네트웍스 사장 등 각 계열사 CEO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손길승 추모위원장은 추모식사를 통해 “고인은 30여년 전 무자원 산유국의 첫 발을 내딛었고, 10여년 전에는 한국을 글로벌 IT강국으로 올려놓는 등 창익와 도전의 여정을 걸어가신 분”이라며 추모했다.

유족 대표로 나온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친계선 가족과 회사 식구들만을 위해 일하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를 만들어 가신 분이였다”며 “많은 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더욱 자랑스런 SK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은 이날 추모식에 이어 최종현 회장 10주기를 기념해 최근 펴낸 추모서적 <일등국가를 꿈꾼 기업인 최종현, 그가 있어 행복했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GS칼텍스(주)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7월 1일부터 새 기업PR광고가 공중과 TV에 방영되고 있다. 회사의 광고에 관심있는 분들은 ‘착한 기름이야기’의 후속편인지, 모델 문근영은 왜 안 보이는지 궁금해하곤 한다. 그 궁금증의 답이 이번 광고 제작의 배경이자 목표라고 할수 있다.

어느새 유가가 150불을 넘보는 초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모든 생활물가의 척도가 되는 유가는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정유사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특히 내수시장에서 단순 정제마진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향유하며, 적극적으로 고유가 타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는 오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사는 회사의 실체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와 당위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우선 사내외 자료조사를 통해 ‘2007년 1조 5천억 원 투자, 2010년까지 5조여 원 투자추진, 연인원 300만 명 고용창출효과, 2007년 매출의 50% 이상 수출, 2008년 200억불 수출목표, 자원

운알유 업계 동향

확보를 위한 해외유전 탐사'등 회사의 실체를 전달할 자료를 수집했다. 무엇보다 수익을 훨씬 상회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매출 50%가 넘는 수출 규모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 전달과 고유가의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회사의 다짐, 두 가지를 녹여내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전달 메시지와 방향이 분명해졌지만 15초 광고로 인상깊게 표현해낼 방법이 관건이었다. 수많은 시안 검토와 재작업을 통해 여수공장을 배경으로 진출한 우리의 모습을 전달하기로 했다. 최종시안이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지만 실제 제작과정은 시간을 다투는 작업이었다.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촬영이 철저히 통제되는 여수공장이 이번 광고의 주인공인지라 각종 허가 와 공장 내 관련팀의 협조가 필요했다. 새벽 3시부터 움직이는 촬영스텝들을 안전지도(!)하기 위해 출동한 공장 안전팀과 업무팀, 바다로 나가는 유조선의 모습을 찍을 수 있도록 터그보트를 긴급 수배해준 원유저유팀, 공장 상공에 유인헬기를 띄우는 초유의 일을 만들어준 비상계획팀, 카메라 화면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스텝들을 이해해준 공장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촬영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특히 공장과 원유부두의 웅장한 규모를 보여주기 위해 시도한 헬기촬영컷은 야속하기만 한 장마가 잠시 견인 1시간 동안 촬영된 것이라 더욱 소중했다.

자원빈국으로 에너지 수입국으로만 알던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접한 후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구나!'생각하며 에너지에 대해 인식을 달리한다면 광고는 목표에 닿은 것이다. 나아가 지난해 수출품목 5위, 올 6월 1위에 오른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을 가진 정유사의 노력과 의지에 대해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화합과 상생의 場 - 가족한마음축제

1부 행사는 생산본부 축구, 테니스 동호회를 중심으로, 생산본부 11개 부문을 8개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대항 체육대회'를 열었다.

체육대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선, 준결승, 결승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특히 각 부문의 열띤 응원전의 열기는 무더운 날씨를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아쉽게도 테니스 경기는 경기 도중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중단되어 자웅을 가리진 못했지만, 참가한 모든 부문이 공동우승을 차지하여 더욱 의미를 나눌 수 있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리던 비는 오후가 되면서 그치고, 얼굴을 내민 밝은 햇살은 참석한 임직원들의 열정만큼이나 환하게 내려 비쳤다.

체육대회를 마치고 오후 4시부터 2부 행사가 시작되었다.

2부 행사는 허진수 사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허진수 사장은 항구적 노사안정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량 20% 절감, 무재해 사업장 실현(1천만인시 달성),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박주암 노조 위원장은 가족의 행복과 회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허진수 사장과의 화합의 악수를 통해 회사의 획기적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축사에 이어 본격적인 2부 공연의 막이 올랐다. 개인시간을 쪼뼀이 활용해 참여한 임직원들은 장기자랑으로 그 동안 숨겨 온 발랄한 끼를 한껏 발산했다. 장기자랑에 참가한 직원들의 뛰어난 재능은 실내체육관을 한 순간에 웃음과 감동으로 몰아넣으며, 많은 임직원들의 감탄을 자아내었다.

윤활유 업계 동향

또한, 행사 말미에는 초대가수 안치환과 많은 임직원과 가족들은 한마음이 되어 노래를 함께 부르며 흥겨움에 도취됐다.

이번 가족한마음축제에 대해 “오랜만에 선후배 동료가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가족한마음축제가 제목에 걸맞게 임직원들이 함께 만들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더욱 발돋움하기 바란다.”, “예년과 달리 단순한 연예인 초청 행사에서 벗어나 임직원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한 것으로 <화합과 상생의 장>에 매우 잘 어울리는 축제였다.”는 임직원의 소감이 이어졌다.

행사를 마치며 가장 흐뭇했던 점은 1,200여 명의 임직원이 무더운 날씨에 체육대회와 공연행사를 진행했음에도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매우 잘 마무리되었다는 점이다. 안전에 관해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축제에 임한 임직원들의 성숙된 안전의식에 박수를 보낸다.

금번 ‘2008년 GS칼텍스 가족한마음축제’를 통해 생산본부 임직원과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보여 준 강한 도전정신과 열정은 GS칼텍스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S-Oil (주)

‘어린이 등하교 안전 캠페인’ 펼쳐

- 23일 어린이 재단과 ‘어린이 등하교 안전 캠페인’ 협약 체결
- 학교 앞 안전펜스 설치 및 ‘안전 호루라기’ 배포 등에 1억 원 지원

S-OIL(대표이사 :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이 대표적인 어린이 사회복지단체인 「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등하교 안전캠페인’을 벌인다.

S-OIL은 23일 서울시 중구 무교동 어린이재단에서 김석산 어린이재단 회장, 고두심 나눔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학교 앞 교통사고가 빈번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어린이 등하교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S-OIL은 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스쿨존 내 안전펜스 설치 및 ‘안전 호루라기’ 배포에 1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중 약 31%는 안전펜스 등 스쿨존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2006년부터 어린이 교통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S-OIL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통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S-OIL의 사회공헌 5대 지킴이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어린이 지킴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S-OIL은 이외에도 S-OIL 사회봉사단과 연계하여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희망나눔캠프, 가정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돕는 ‘그룹홈’ 어린이 지원 등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맨발의 생태체험 캠프’ 열어

- 3차에 걸쳐 서울지역 인근 아동시설 어린이 약 230명 초청 계획
 - 4일 영등포복지관 및 마천복지관 어린이 100명 첫 방문
- S-OIL이 방학을 맞이하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활동에 나섰다.

윤활유 업계 동향

올해 '천연기념물 지킴이' 활동을 시작한 S-OIL은 4일 강원도 화천군의 폐교에 마련된 토고미 자연학교에서 '맨발의 생태체험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문교실은 8월 6일까지 3차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서울지역 인근 아동시설 어린이가 약 230명의 캠프 참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날 오전 캠프를 찾은 서울시 영등포 복지관 및 마천 복지관 어린이 100명은 감자 캐기, 산천어 잡기, 수달 특강, 별자리 관찰, 자연물로 작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자연의 신비와 환경의 가치를 체험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회사 관계자는 "방학을 맞이한 아동시설 어린이들이 캠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S-OIL은 소외되거나 관심이 부족한 이들에 대한 각종 지킴이 활동을 통해 이웃과 협력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S-OIL은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환경 지킴이' 외에도 근무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소방관의 가족을 돕는 '소방영웅 지킴이', '어린이 지킴이', '소외이웃 지킴이',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민을 위한 '지역사회 지킴이'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셀석유(주)

동아대 등 3개 대학에 장학금 지급

- 지난달 영남대 발전기금 기부에 이어, 지방대학에 7년째 장학금 지급
- 장학 사업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

한국셀석유주식회사 (대표이사 : 하중환, 이하 '한국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부산에 소재한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한다.

한국셀은 19일엔 부경대, 20일엔 한국해양대를 방문하여 각각 1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동아대학교를 방문하여 본관 2층 회의실에서 1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하는 등 3개 대학에 총 4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기증했다. 이번 장학금은 모범적인 대학생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등록이 곤란한 남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셀은 지난 2002년 한국해양대를 시작으로 올해로 7년 째 지방 대학에 장학금 기부를 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는 영남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 한 바 있다. 이번 동아대학교와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 장학생을 포함하면 수혜 장학생은 84명, 총 누적 장학금액은 1억8천5백 만원에 이르게 된다.

한국셀의 하중환 사장은 "한국셀은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성장, 발전한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인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에서도 향학열을 불태우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셀석유주식회사

1960년에 설립된 한국셀은 세계적인 에너지회사인 로열더치셸의 계열회사로 자동차와 선박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윤활유 등을 생산해 판매, 수출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2년 연속으로 경실련이 선정하는 '경제정의기업상'을 받기도 했다.

* 문의: 한국셀석유주식회사

/ 김은영 (Tel. 02-3149-5498)